

농촌 인구절벽에 농협들 '하나로' 뭉친다

광주·전남 조합, 합병으로 건전성 제고...1989년 이후 166곳 합병 담양-월산 2월 예정...3월 합병 여천-울촌농협 전국 10위권 '눈앞'

농업 인구절벽을 겪고 있는 전남지역 농협들이 자립경영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합병을 택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전남 4개 조합(여수·여천, 담양·월산)이 자율합병을 위한 투표를 가결시키며 지난 2018년 순천농협 이후 합병 바람이 다시 거세게 불고 있다.

이는 농축협들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른 절차였지만, 수십 년 평생 거래처가 없어지는 박탈감과 불편은 조합원들이 안고 가야 하는 한계가 있다.

4일 농협 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전남본부가 자료를 보유했던 1989년 이후 합병된 조합 수는 166개(중복 포함 186개)에 달한다.

지난 30여 년 동안 166개의 조합이 흡수되거나 다른 조합과 합쳐졌다는 말이다. 지난 2002년 202개였던 전남지역 조합들은 올해 146개로, 56개(-27.7%)나 줄었다.

자본과 손익구조가 취약한 조합들은 수년, 수십

년 동안 1~5차에 걸친 합병을 겪기도 했다.

보성농협의 합병 역사는 지난 198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11월 노동농협과 흡수합병한 보성농협은 1990년 미력농협, 2006년 용지농협과 3차례에 걸쳐 합병을 거듭해왔다.

1999년 최종 합병을 마친 구례농협은 1992년을 시작으로 용방, 광의, 토지, 문척, 간전, 마산, 동부 등이 스며들었다. 서진도농협은 13년에 걸쳐 임회, 광석, 지산, 조도농협이 합쳐지며 새로운 이름을 얻었다.

완도농협(금일·금당·약산·군외·신지·청해진·고금·약산금일)이 2009년 합병을 마치기까지는 무려 5차례에 걸친 합병이 이뤄졌다.

가장 최근 합병사례로 꼽히는 순천농협과 별량농협은 지난 2018년 2월 합쳐졌다. 1995년 승주와 주암농협에 이어 지난 1997년 별량농협을 제외한 순천시 13개 지역농협을 합병한 순천농협은 별량농협과 합병을 마무리하면서 순천시 지역농협 통합

을 완성하게 됐다. 당시 총자산 1조9000억원, 조합원수 1만8000명으로 전국 최대 규모 지역농협으로 재출발했다.

올해는 전남지역에서 자율합병된 조합 2곳이 탄생한다.

담양농협과 월산농협의 합병은 오는 2월 말 마무리되며, 여천과 울촌농협은 3월 말 합병을 마칠 예정이다. 지난해 두 조합은 이사회 심의를 거친 뒤 조합원 과반이 참여하는 투표를 벌여 담양 87.8%, 여천 84.8%에 달하는 찬성률을 나타냈다.

담양지역 농협 합병은 지난 2006년 장평과 대덕농협, 고서와 남면농협 합병, 2007년 담양과 용면농협 합병 뒤 14년 만에 치러졌다.

여천과 울촌농협은 16년만에 '3려' 지역의 농협 통합을 이루게 됐다. 울촌농협 조합원은 1400명에 불과했지만 이번 통합으로 총자산 1조1000억원, 조합원 수 7500명에 달하는 전국 10위 규모 농·축협으로 거듭난다.

전남에서 품목조합을 제외하고 조합 설립인가 기준인 조합원 1000명에 못 미치거나 1100명대로 턱걸이하는 조합은 20개에 달한다.

선지역 조합 설립 기준은 300명, 품목조합은

200명이다. 지난해 연말 기준 전남 146개 조합들의 조합원은 28만4023명으로, 전년보다 1756명 감소했다.

심각한 고령화와 농촌 이탈이 벌어지는 전남지역 조합원 수는 2017년 30만5825명, 2018년 29만5139명, 2019년 28만8771명, 2020년 28만5779명, 지난해 28만4023명으로 해마다 감소 추세다. 4년 새 조합원은 2만1802명(-7.1%) 줄었다.

광주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지난 2020년 말 기준 14개 농협 조합원 수는 2만1170명으로, 이 가운데 조합원 1000명이 넘는 조합은 4곳이다. 광주지역 농협들은 도시농협과 농촌농협 간의 격차가 점차 심화되면서 경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합병 촉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합병에 선뜻 나서지는 움직임이 없어 2013년 지역에서 첫 합병권고를 받은 조합의 경우 9년에 걸쳐 이렇다 할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지역 곳곳에서는 내년 3월 치르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겨냥한 표심 때문에 수년간 지체된 합병을 다음으로 미루는 사례도 적잖게 볼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989.24 (+0.47)
↓ 코스닥	1031.66 (-6.17)
↑ 금리(국고채 3년)	1.868 (+0.013)
↑ 환율(USD)	1194.10 (+2.30)

'손안의 금융비서' 마이데이터 본격 시행

광주은행 등 금융사 33곳

광주은행 등 금융사 33개사가 맞춤형 금융 서비스 '마이데이터' (본인신용정보관리업)를 5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부터 33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표준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방식을 통해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마이데이터는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 곳에 모아 보여주고 재무 현황·소비 습관을 분석해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등 자산관리와 신용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다.

마이데이터에 참여하는 10개 은행에는 광주은행과 전북, KB국민, 농협, 신한, 우리, 기업, 하나, 대구, SC제일 등이 있다.

이외 금융투자회사 4개사, 카드 6개사, 웰컴저축은행, 농협중앙회, 나이스평가정보 등도 포함된다. 토스와뱅크셀러드 등 금융정보기술(핀테크) 10개사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나머지 마이데이터 사업자 21개사는 시스템과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으로 사업에 동참할 예정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비트코인 10만달러 가나 전문가 엇갈린 분석

대표적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의 올해 가격 전망에 대해 전문가들이 엇갈린 분석을 내놓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이 올해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줄 가장 큰 요소로 꼽히는 가운데 메타버스(3차원 가상공간)와 대체불가토큰(NFT)에 대한 기업과 소비자의 높은 관심이 가상화폐 가격을 끌어올릴 것이라 관측도 있다고 전했다.

투자자문사 페이리드 스트래티지의 케이티 스톡턴 창립자는 비트코인 가격의 장기적인 상승 추세가 올해에도 이어지면서 9만 달러(약 1억700만원) 선까지는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면 오안다 아시아퍼시픽의 선임 시장분석가인 제프리 할리는 가상화폐 시장의 투기 열기가 올해에도 이어지겠지만 투자환경은 지난해보다 우호적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연합뉴스

관절·연골건강엔 '그린뉴에스에스조인트케어'

그린알로에 신제품 출시

그린알로에(대표이사 정광숙)는 관절과 연골건강을 위해 식물성식이유황(MSM)과 건조효모유래비타민D를 주원료로 한 건강기능 신제품 '그린뉴에스에스조인트케어'(사진)를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관절 영양성분인 MSM은 캐나다산 식물성 소재다. 여러 단계의 증류기법을 통해 순도 높은 100% 식물성 원료를 사용, 중금속 오염도까지 낮춰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체 적용시험을 통과하는 등 가능성을 입증 받은 신소재다.

관절의 염증을 줄이는 자연적인 방법을 기능식품에 접목해 주원료 외에 신소재를 총체적으로 함유,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춘 것도 특징이다. 뼈의 발육과 관련된 칼슘 대사에 필수 영양소인



비타민D는 인체 합성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음식 섭취로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 건조효모에서 유래한 원료를 선택했다.

이밖에 초록입홍합, 강황, 버드나무추출물, 피쉬콜라겐과 상어연골, 보스웰리아 등 각광받고 있는 관절소재들이 부원료로 함유됐다.

주차미 그린알로에 연구소장은 "이번 신제품은 노화로 관절과 연골의 기능이 떨어졌거나 손가락, 손목관절이 불편하고 무리한 관절사용으로 통증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서홍-왼쪽 세 번째)는 4일 지역본부에서 상호금융 금융자산 달성탑 시상식을 열었다. 왼쪽부터 허순구 광양농협 조합장, 이명기 동광양농협 조합장, 박 본부장, 조재원 조합장 <전남농협 제공>

광양농협·동광양농협 상호금융 금융자산 1조 달성탑

광양농협과 동광양농협이 상호금융 금융자산 1조원을 달성해 농협중앙회로부터 달성탑을 받았다.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4일 무안군 삼향읍 지역본부에서 열린 새해 첫 정례대회에서 상호금융 금융자산 달성탑 시상식을 열었다.

이번 시상식은 농협중앙회가 지역농축협의 건전경영과 내실성장을 도모하고자 올해 처음으로 시행했다. 농축협이 보유한 여수신을 합산한 금융자산이 일정금액이 되었을 때 수여한다.

광양농협과 동광양농협은 지난해 금융자산 1조

원을 달성하고, 구례농협은 5000억원 달성해 달성탑이 주어졌다. 지난해 전남농협 상호금융은 여수신 40조원 시대를 열기도 했다.

박서홍 전남본부장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어려운 사업여건에도 조합원, 고객에게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한 임직원들이 이뤄낸 소중한 성과"라며 "전남농협의 모든 농축협은 농업인과 지역고객의 실익에 도움이 되는 선진 금융실현으로 지역사회 대표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새해 운세 점쳐볼까 새해를 맞아 롯데아울렛 광주수원점을 찾은 고객이 2층 행사장에서 타로 카드 점을 보고 있다. 이 공간은 이달까지 무료로 운영된다. <롯데쇼핑 제공>

돈돈한 지키자

실손의료보험! 국민건강!

올바른 의료이용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으로 모두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